

신앙인의 삶 = 육체 < 영혼

배 기 환



교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 11월입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와 영혼 중 어느 쪽에 더 우위를 두고 살아가나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입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야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신앙인이라면 보통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혼이 더 우선이기 때문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영혼이 기도에 굶주리고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죄악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는 것은 아닌지……. 가톨릭 교회에서는 11월을 ‘위령 성월’로 지내며, 특별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령’ (慰靈)이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한다는 뜻인데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의 영혼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다면, 주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지요?

내가 아끼는 보물은?

외국의 어느 한 도시에서 ‘영혼’에 관한 강연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연을 듣기 위해 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강연자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을 꺼내 자신이 아끼는 보물들을 적어 보세요.” 사람들은 각자 종이에 자신의 보물을 하나 둘씩 써 내려갔습니다. 집, 자동차, 통장, 애완동물 등. 몇 분의 시간이 흐른 뒤, 강연자는 갑자기 통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통 안에는 빨간 스티커 문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청중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종이에 빨간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붙여 드린 빨간 스티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순간’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의 보물들에는 순간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 산다면 순간의 쾌락, 만족, 성취를 쫓는 삶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는 빨간 스티커가 붙여진 보물 목록들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강연장 안에 순간을 초월해,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입



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 집, 돈, 직함, 성취 등,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보물들 중 상당 부분은 육체의 만족을 위한 것일 겁니다. 과연 나의 영혼의 유익을 위한 보물은 얼마나 됩니까?

위령을 위한 기도와 희생은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죽은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지들을 위해서 제사를 바치는 관습이 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서 조상들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이죠. 이러한 점은 가톨릭 교회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전부터(4-5세기) 사도신경을 통하여 ‘모든 성인들의 통공’이라는 교리를 고백해 왔습니다. 이 교리는 교회를 이루는 세 구성원,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천상의 영광을 누리는 이들’, 그리고 ‘연옥에서 단련 받고 있는 이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즉, 이 세 구성원이 기도와 희생으로써 서로를 도울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특히 연옥 영혼의 경우, 스스로 새롭게 선업을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로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심판 날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 숨 쉬는 동안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일이, 세상을 떠난 영혼들에게는 물론 내 영혼에게도 유익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령 성월인 11월, 우리 모두 기도와 희생으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배기환, 프란치스코 서울대학교 신부, 2007년 서풍, 현재 방배4동 보좌신부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다.